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WEB CONTENTS



2021년 10월 26일 12시 28분



여수시

목차

목차	2
문화/경승지	3
상세설명	3
이용안내	3
부대시설/인접시설	4
주변정보 (주변2km이내)	4
관련 여행코스	4



거문도 역사 박물관

06-759-12

추천



관심여행담기

상세설명

고종 22년(1885)부터 1887년까지 약 23개월에 걸쳐 영국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무단 점령했던 '거문도 사건' 과정에서 병이나 사고로 죽은 영국군의 묘지이다.

당시 영국군의 철군 결과를 확인하고자 거문도에 내려온 경략사(經略使) 이원회(李元會)의 보고에 의하면 사망자 묘지는 총 9기 였으나 현재는 2기만 남아있다.

서구식 비문에는 "1886년 3월 알바트로스(Albatross) 호의 수병 2명이 우연한 폭발 사고로 죽다. 윌리엄 J. 메레이(William J. Murray)와 17세 소년 찰스 델리(Charles Dale)"로 새겨져 있고, 십자가에는 "1903년 10월 3일 알비온호 승무원 알렉스 우드(Alex Wood)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다.

영국군 묘지는 당초 고도의 하늘땀(여객선 터미널 동북쪽 100m 지점)에 있었는데, 1910년 경술국치와 더불어 일본인들이 고도를 삼산면 면소재지로 만들면서 현재 자리로 이장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영 타도 주장이 높아져 일본인들에 의해 지금 남아 있는 묘비보다 더 큰 서구식 묘비는 파손되고 현재 남아 있는 서구식 비석도 두 동강나 굴러 다닌 것을 해방 이듬해 섬 유지들이 보수하여 다시 세웠다.

비록 강제적인 점령이었다고는 하나 머나먼 타향에서 죽어간 외국군들의 아픔마저 보듬어주는 우리의 민족성을 엿볼 수 있다.

비극과 슬픔의 역사를 간직한 영국군묘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서도를 잇는 삼호교가 바다를 가로고 있다.

이곳에서는 거문도를 감싸고 있는 바다와 경치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국력이 미약했던 사건 당시의 슬픔을 상기하며 역사의 한 귀퉁이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용안내

개방시기/휴무일	연중개방 / , 연중무휴()
이용요금	무료
주차시설	주차요금 : 무료. /
유모차대여	없음
장애인시설	없음
외국어서비스	불가능

부대시설/인접시설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정보 (주변2km이내)

관련 여행코스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tag 여수, 거문도 역사공원, 영국군묘지, 거문도 돌담길

[목록으로](#)

COPYRIGHT (C) BY YEOSUCITY. ALL RIGHT RESERVED.

YEOSU CITY
Web Contents

